

## 서밋, 신규 이민자 기술을 기회와 연결

2026년 4월 15일

신규 이민자 공정성 주수상 서밋(The Premier's Summit on Fairness for Newcomers)은 고용주, 교육자 및 신규 이민자를 한데 모아, 기술과 기회를 연결하고 장벽을 해소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알버타는 이민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신규 이민자들이 자신의 기술을 활용해 경력으로 이어지는 진로를 찾으며, 필요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규 이민자들이 새로운 가정과 일자리, 지역사회에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알버타 주정부는 이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기회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 이민자 공정성 주수상 서밋은 자격 인증 개선, 멘토링 기회 확대, 그리고 고용주와 숙련 노동자 간의 연결 강화 등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규 이민자들이 자신의 기술을 펼치고 이곳에서 진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때, 우리 주 역시 혜택을 입습니다. 이번 서밋의 핵심은 장벽을 허물고 신규 이민자들이 이미 보유한 기술을 제대로 인정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는 알버타주가 이러한 성공을 뒷받침할 역량을 갖추고, 모든 주민을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니엘 스미스(Danielle Smith) 주수상

올해로 신규 이민자 공정성 주수상 서밋은 네 번째를 맞았습니다. *‘알버타 경제의 도약: 신규 이민자 기술과 경력의 잠재력 실현(Driving Alberta's Economy Forward: Unlocking Newcomer Skills and Careers)’*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서밋에서는, 신규 이민자들의 성공 사례, 전문 분야 정착을 위한 멘토십의 역할, 모범 사례, 그리고 이민자들이 알버타 경제에 기여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경로가 강조되었습니다.

“신규 이민자들은 알버타의 미래에 핵심적인 존재로, 우리 경제와 지역사회에 기술, 혁신,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밋은 신규 이민자들이 도착 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자원에 대한 인식을 높입니다.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것부터 자신의 기술과 교육을 바탕으로 경력 경로에 진입하는 것, 또는 창업에 이르기까지, 신규 알버타 주민들이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 야신(Muhammad Yaseen) 다문화 담당 부장관*

알버타 주정부는 이민이 지속 가능하며 노동시장 수요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이민자 지원을 위한 조치에는 건강이나 안전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 요건으로 캐나다 근무 경력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포함됩니다.

알버타 주정부는 또한 최근 법안 21호(Bill 21)인 *이민 감독법*(Immigration Oversight Act)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에 주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이민 시스템 내에서의 악덕 고용주, 채용 알선업자, 컨설턴트로부터 신규 이민자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또한 이민 컨설턴트와 해외 채용 알선업자에게 주정부 면허 취득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서밋을 통해 수집된 의견은 향후 정책과 프로그램 수립을 이끄는 데 활용되어, 신규 이민자들이 자신의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기회와 연결하고 알버타의 장기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관련 정보

- [신규 이민자 공정성 주수상 서밋](#)

## 미디어 문의

샘 블랙킷(Sam Blackett)

[Sam.Blackett@gov.ab.ca](mailto:Sam.Blackett@gov.ab.ca)



뉴스 보도

587-589-6048

주수상실 대변인

헌터 바릴(Hunter Baril)

[hunter.baril@gov.ab.ca](mailto:hunter.baril@gov.ab.ca)

780-619-5774

일자리·경제·통상 및 이민부 대변인